

**14<sup>th</sup> Sess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Working Group**

**(22 October-5 November 2012)**



**Detail Information on Suicide in the Military  
of the Republic of Korea**

**25 Oct 2012**

**Right to Life in the Military**

	<u>Page</u>
I. Background Information	p 2
II. Overview	p 2
III. Death Toll and Suicide	p 3
IV. Suicide Toll by Rank	p
V. Causes of Suicide	p
VI. Analysis	p
VII. Suggested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p

**Contact Information**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Address:** #303, Women's center for Equality & Peace, 6, Gukhoe-daero 55-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150-037

**Website:** [www.mhrk.org](http://www.mhrk.org)

**E-mail:** [mhrk119@gmail.com](mailto:mhrk119@gmail.com)

**Phone:** +82 (0)2 733 7119

**FAX:** +82 (0)2 2677 8119

## I. Back Ground Information

1.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established in 2009, is locat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ROK). It is currently registered at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Its main activities are counseling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military, providing legal assists, and observing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the military. The CMHRK participated in the 1st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n 2008.<sup>1</sup> In 2012, it submitted its individual submission to the 2nd cycle of the UPR, and participated in the joint submission to the working group of the UPR.
2. Terminology: In this document “Soldier” refers to those who are in the ranks from Private to Sergeant. They are usually composed of males in their twenties who are mandatorily conscripted according to the oblig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When the document refers to all ranks of soldiers, “Military Personnel” was used.

## II. Overview

1. 2008 년도부터 2011 년까지 군인 자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자살자 중 상당수는 하위계급 병이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군대 생활에서 비롯된 문제로 자살을 택하고 있다.
2. 한국의 군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보를 이유로 기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폐쇄적이다. 군인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특히 절대적 상명하복 및 이미 폐기된 특별권력관계 이론<sup>2</sup>에 따라 불합리한 명령에도 저항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런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마치 입회식과 같은 지위에 상정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III. Death Toll and Suicide

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의 총 사망자 수는 지난 10여 년 간 평균 1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01년 66명, 2006년 77명, 2011년 97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45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95명이 자살로 사망하여 군대 내 자살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에는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다시 자살자 수가 3자리수에 가까워졌다. 정희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이 2009년 7월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275억 원의 관련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자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See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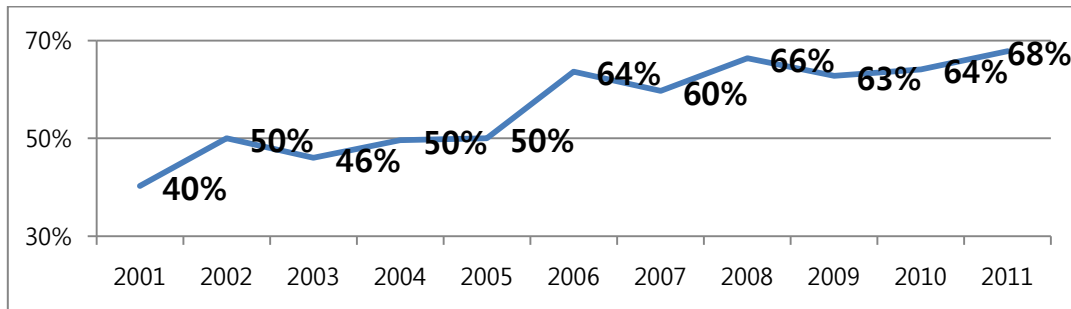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June 2012	Sum
Suicide	66	79	69	67	64	77	80	75	81	82	97	52	837
Death Toll	164	158	150	135	128	121	134	113	129	128	143	-	1503

Table 1 Death Toll and Suicid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Congressperson Jeong, Hui-su)

<sup>1</sup> Its name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e for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sup>2</sup> besonderes Gewaltverhältnis refers to the relationship of obedience of one to another, and this produces Vorbehalt des Gesetzes and places authority to order, direct, discipline to the inferior on the sup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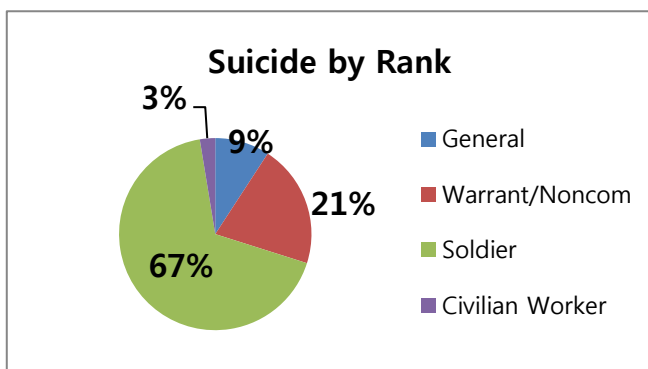
4.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자살이 사망의 원인으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살의 사망원인 비율은 2000년대 초반 50%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68%를 기록했다 (See Graph 1). 이는 자살이 군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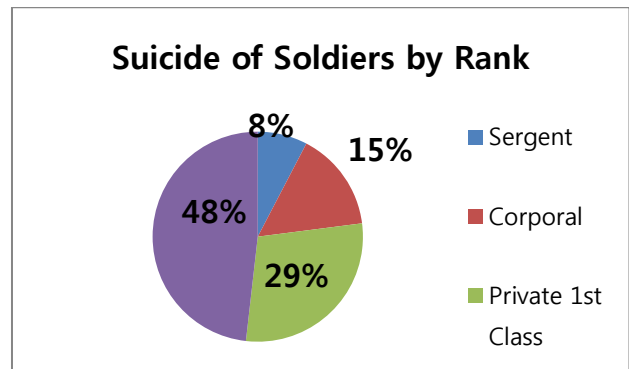
Graph 1 Suicide out of Death Tol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IV. Suicide by R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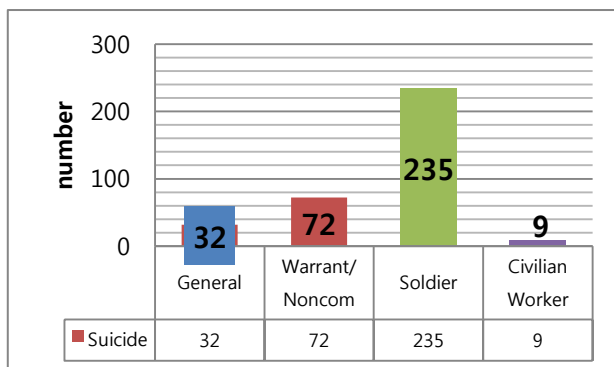
5. 심대평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면, 군내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병임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총 67%가 병이었고, 21%가 준부사관 계급이었다 (See Graph 2 and 4).
6. 이런 경향은 더 세부적인 계급에서도 유지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헌병감실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자살한 병의 계급을 분석한 결과 48%가 이병, 29%가 일병으로 전체 병 자살의 77%를 하위 계급이 차지한다 (See Graph 3 and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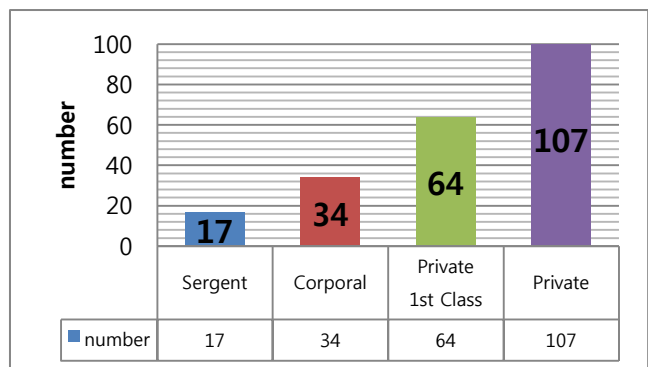
Graph 2. Year: 2006 - Jun 2010



Graph 3. Year: 1996 - 1998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Graph 4. Year: 2006 - Jun 2010



Graph 5. Year: 1996 - 1998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7. 이런 경향은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대에서 복무하는 초급장교(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가 매년 20명 가까이 자살한 것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2000~2011년까지 총 174명의 초급간부가 자살했다 (See Table 2).

Rank	Low Company Grade			Low Noncom		Sum
	Captain	First Lieutenant	Second Lieutenant	Sergeant First Class	Staff Sergeant	
Number	26	17	11	54	66	174

Table 2. Year: 2000~Jun. 2011 (Army Headquarters, Air Force Headquarters, Navy Headqua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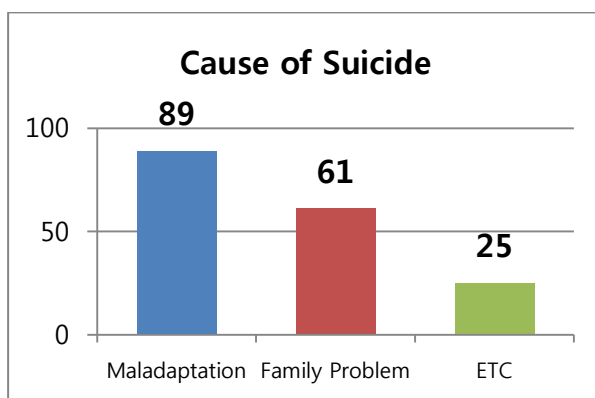
8. 더 나아가 군이 2011년 7월 중상사 6만38명과 위관급 장교 2만9130명 등 총 8만9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10.2%(9131명)가 전문가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사 가운데 의사 진료가 필요한 비율은 3.4%(2021명)이었고, 상담이 필요한 수도 7.7%(4609명)이었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도 진료 필요 인원이 5.6%(1610명), 상담 필요 인원이 3.1%(891명)이었다 (See Table 3).<sup>3</sup>

	Company Grade	Master Sergeant/ Sergeant First Class	Sum
Counseling	891	4609	5500
Treatment	1610	2021	3631
Sum	2501	6630	9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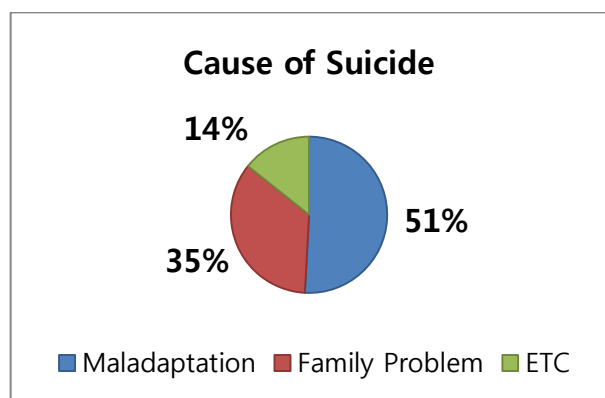
Table 3. Year: July 2012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who need Medical Counseling or Treatment

## V. Cause of Suicide

9. 심대평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군인 자살 원인의 절반이 부적응이다. 그 다음으로 가족문제와 기타 사유가 따른다. 결국, 군 자살의 상당부분이 군 환경과 연관이 있다 (See Graph 6 and 7).



Graph 6. Year 2006 – Ju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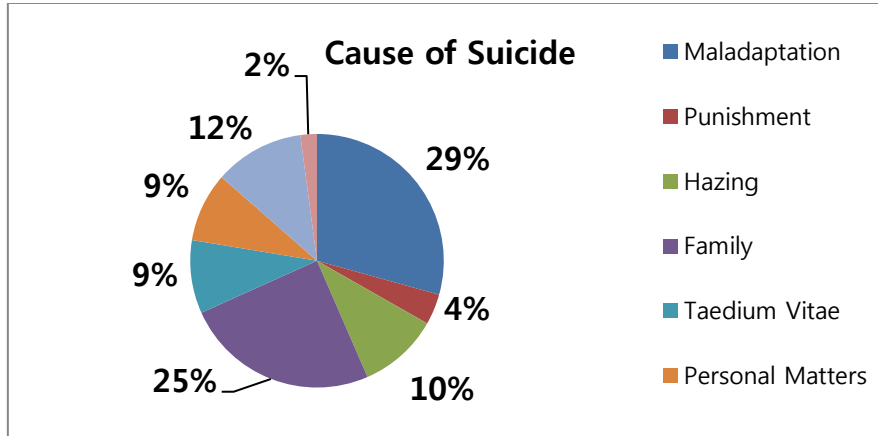
Graph 7. Year 2006 – Jun 2010

10. 과거 헌병감실 자료를 보면, 군에 대한 ‘부적응’<sup>4</sup> 문제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한

<sup>3</sup> Jo, Byeong-uk, “How to Stop Nonbattle Strength Loss”, *Segye* 1 Nov 2011, retrieved from 5 Oct 2012, [www.segye.com](http://www.seg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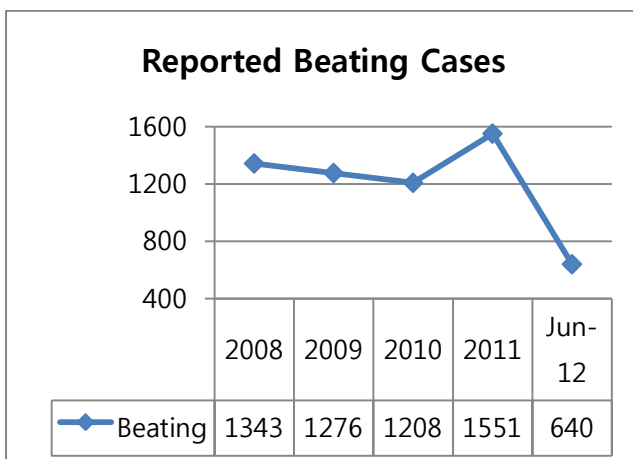
<sup>4</sup> The term “maladaptation” implies the military authorities’ perspective on suicide cases that those who die are the weak

부분 군 환경이 병사에게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부적응’, ‘처벌 우려’, ‘가혹행위’는 군 내부에 소재하는 자살촉발 요인이다. 이들이 전체 자살원인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헌병감실 자료는 염세, 신병, 열등감 등을 군 외적 문제로 분류했으나, 이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군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군의 경우 행정, 사법, 의료 서비스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군 내부적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ee Graph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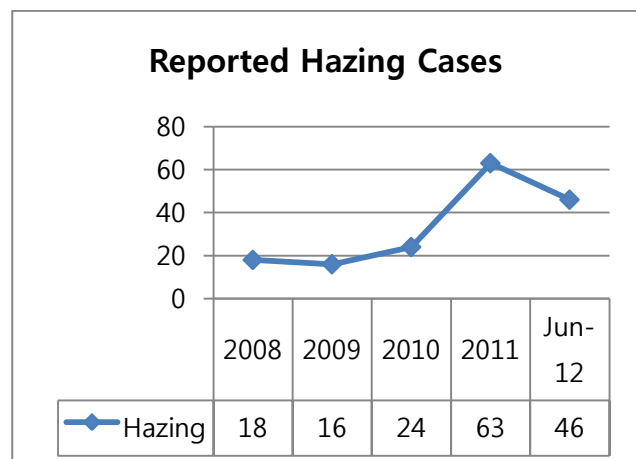


Graph 8. Year: 1997 - 2002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11. 구타 및 가혹행위로 잘 알려져 있는 군내 자살 요인은 전혀 통제되거나 줄어들고 있지 않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에 신고되어 군 검찰이 수사한 구타 사건은 2008 년에 1,343 건이었으나 2011 년에 1,511 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구타의 급증이 자살 건수가 2008 년 75 건에서 2011 년 97 건으로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가혹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치들이 모든 구타 및 가혹행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자료에는 군이 은폐, 누락하거나 징계를 통해 처벌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 (See Graph 9 and 10).



Graph 9 Congressperson Choi, Won-sik



Graph 10 Congressperson Choi, Won-sik

and the trouble maker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12. 한국 군 당국은 상당한 양의 범죄를 행정처분으로 처리한다. 아래 표는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보고의무위반 등등의 이유로 징계입창 처분을 받은 병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징계 사유가 다양하여, 아래 표는 총합만을 나타낸다. 표에서 중요한 점은 상당한 수의 범죄가 위의 11 문단 그래프 9 와 10 에서 제시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목할만하게도, 영창징계 처분을 받는 병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1 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군 생활, 군 문화, 군대의 환경, 군내 문제가 군인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See Table 4).

Year	2008	2009	2010	2011	July 2012	Sum
<b>Total</b>	9,300	11,829	12,771	14,442	7,172	55,514
<b>Marine</b>	839	918	1,074	1,190	379	4,400
<b>Air Force</b>	54	76	85	135	62	412
<b>Navy</b>	115	160	171	295	218	959
<b>Army</b>	8,292	10,675	11,441	12,822	6,513	49,743

Table 4 Number of Soldiers sent to military prison (Congressperson Choi, Won-sik)

## VI. Analysis1

Section	State's position	Refute
III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군인에 비해 민간인이 2배에 달한다.	민간인과 군인을 비교한 부적절한 비교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 <sup>5</sup>
	자살자가 30년 전에 비해 줄었다.	정부는 군 복무가 가능한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점은 정부의 징병검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자살에 대한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군 당국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전체 병력이 국방개혁에 따라 정책적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했다. 군인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40%를 기점으로 2011년에는 68%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IV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캠프, 그린캠프, 병영상담관, 생명의 전화,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1987년 '매 맞는 군대 청산' 추진,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 종합계획' 발표, 2005년 GOP 총기사건 이후 '구타가'	하위 계급에 있는 장병들이 자살요인에 많이 노출된다. 문제를 신고하면 나약하다고 문제삼고, 신고한 병사를 "구타유발자"로 규정하는 문화가 그 원인이다. 따라서 군 병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sup>5</sup> 참고로 2010년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OECD 평균은 31.2명이었다. (See OECD Statistics: stats.oecd.org)

	<p>혹행위 금지 등 병영문화 개선방안’ 마련, 2009년 ‘자살종합예방시스템’ 구축, 2011년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p>	<p>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관련자 처벌율이 2000년대에 26.1%에 불과했다.<sup>6</sup></p>
		<p>군이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2009년 9월 마련했음에도 2008년 75건이었던 자살건수가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으로 수도 증가하고, 증가 추세도 유지되고 있다.</p>
		<p>군 밖에서의 도움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1998년 신설된,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에서 군인이 군 외부에서 고충처리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부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p>
V	<p>정부는 자살 원인으로 부적응을 설정하여 상당수의 군인 자살자를 부적응자로 규정한다.</p>	<p>이런 분류는 자살의 책임을 군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다양한 자살촉발 원인을 간과하고,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p>
	<p>자살의 이르는 경로를 개인의 비합리성, 무능력, 좌절감 등으로 본다.</p>	<p>근본적으로 ‘부적응’도 군대라는 환경조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sup>7</sup></p>
	<p>신병들이 개인주의적 사고에 물들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사회에서 사람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 군내 자살이 발생한다.</p>	<p>2011년 美국무부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에서 언급되듯, 군대 내 자살자 중 1/4이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병영 문화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p>

## VII.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사건

- A. 최형호 - 구타가혹행위로 총기로 자해사망
- B. 김범수 - 구타가혹행위로 외출 나와 목을 매어 자해사망
- C. 정희택 - 궤병으로 간주되어 폭언을 듣고 목을 매어 자해사망
- D. 위의 세가지 사건은 모두 군인권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실시했으며, 3 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을 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VIII. Suggested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 Questions

- Q.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얼마나 많은 병이 “그린캠프” 혹은 그와 유사한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중이나 그 이후에 자살하였는가?

<sup>6</sup> Kim, Ho-cheol, “Scoping Problems of Suicide in the Military through Complaints on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Expert Discussion 2006: How to Treat Those Whom Are Disposed of as Suicide in the Military*,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2006): p. 37. Print

<sup>7</sup> Ibid. p. 14-20.

- Q.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자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가해자들이 얼마나 처벌받았으며, 그들의 최종 형은 무엇인가?
- Q.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부적응”이 자살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이 군대에 자살 위험 요소가 내재한다는 것임에도, 병이 군 외부에서 도움을 얻는 것을 왜 금하고 있는가?
- Q. 군 당국이 자살 및 가혹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안인 OP-CAT에 가입하는 것을 머뭇거리는가?

#### *Recommendations*

- 고문방지선택의정서 가입
- 군인복무규율 25조4항 폐지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단계를 마련할 것
- 군인을 영창에 보낼 권한을 상관이 아니라 법관에게 두도록 군인사법의 관련 법률 개정
- 개인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기적 군 인권실태조사를 허용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
- 하급 군인들의 비합리적 명령에 불복할 권리를 법과 관행으로 보장할 것
- 구조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모든 군인에게 제공하여 모든 유형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것
- 입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면서 의사와의 장기적인 진료를 그들에게 제공할 것